당진시의회

의정소식

DANGJIN METROPOLITAN COUNCIL

2025. 4분기 Vol. 43

당신의 등대가 되길
응원합니다



당진시의회
DANGJIN CITY COUNCIL





Contents

02 인사말

04 의정뉴스

16 의정활동
5분 자유발언
건의안·결의안 발의

35 의원출무일

37 회기별 처리안건
제124회 임시회
제125회 정례회

43 상임위원회 활동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50 시정 질문

63 포토의정

76 당진의 숨은 옛날이야기
김복선과 이율곡 전설 (합덕 방죽)
선녀골과 선녀바위 이야기
삼형제 바위

90 의회안내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당진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생활과 현안을 살피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선선한 가을을 지나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 덕분에 당진시의회는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당진시의회는 올해 지역 경제 침체와 다양한 행정 환경 변화 속에서도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의정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농어민, 산업 현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며 조례 심사와 예산·행정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총무위원회를 행정문화위원회로 명칭을 개편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는 개편 이후 분야별 현안과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진시의회는 미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2서해대교 건설 사업의 재추진 필요성을 관련 기관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이는 산업과 물류 경쟁력 강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책과 사업을 세밀히 검토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 마련에 힘썼습니다. 에너지 전환, 자원 순환, 친환경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분야를 점검하며 장기적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번 제43호 의정소식지에는 2025년 4분기 동안의 주요 의정활동, 현안 점검 결과, 예산 심사 내역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당진시의회는 앞으로도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지역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당진시의회**



의정 NEWS

당진시의회, 2025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123회 임시회 마무리

10월 1일



당진시의회가 10월 1일(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7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의수) 및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던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8건, 계획안 1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안 1건 총 28건을 심사했고,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3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의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예술과 소관 '찾아가는 전시회' 등 7개 사업 4억 5천만 원을 삭감한 총 1조 6천4백억 원 규모의 추가 예산안을 의결했다.

서영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의결된 예산과 조례는 당진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라며 "특히 민생 안정과 관련한 제2차 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삶이 더욱 든든해지길 기원하며, 당진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성장하고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의정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당진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행정문화위원회'로 변경

10월 13일



당진시의회는 제12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우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하고, 기존 '총무위원회'를 '행정문화위원회'로 명칭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총무위원회'라는 명칭이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다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이다.

기존 총무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안전국 ▲문화복지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읍·면·동 소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해왔다.

당진시의회는 조례 개정으로 이들 소관 사항은 그대로 유지되며, 위원회 명칭을 통해 소관 부서의 기능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명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위원회의 실제 소관 업무를 시민과 의회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명칭이 기능을 명확히 드러내는 만큼, 위원회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조례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진시의회, '10월 중 의원출무일' 개최

10월 16일

당진시의회는 16일(목) 의회 대회의실에서 '10월 중 의원출무일'을 개최했다.

이날 문화예술과는 '2026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하며 "충분한 지원 가치를 지니고 있는 축제들이 더 큰 효과를 거두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보고했다.

공원녹지과는 '호수공원 손실보상비 감정평가 결과'를 보고하며, 보상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필요성과 예산 편성 계획을 설명했다.

투자유치과는 1 ~ 3단계 과정을 거쳐 리조트, 골프장, 치유센터 등 해양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태양광 설치를 통한 재생에너지 활용으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등 다양한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집행부서의 현안 사항 보고 청취에 이어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개의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사전 설명이 이어졌다.

당진시의회는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하고, 2025년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8일간 열리는 제124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집중호우 피해 예방 위한 수문관리 개선 간담회 개최

10월 23일

당진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는 20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하천 수문관리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를 열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윤명수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6명과 당진시청 건설과 관계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관계자, 수문관리 용역업체 대표, 일반인 대표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과 9월에 이어 현장 방문 및 피해 주민 의견 청취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수로 관리 부실과 수문 작동 문제, 주민과의 소통 부재 등 그동안 제기된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시는 효율적인 수문 관리를 위해 「당진시 수문 관리·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 중으로, 향후 수문 감시원 위촉, 근무기간, 수당 지급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명수 위원장은 "이번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내년 용역 확대와 예산 반영 등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하천 관리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정 NEWS

당진시의회, 제12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개회

10월 22일



당진시의회는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8일간 제124회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각종 안건 심사 등 총 19건의 의안 처리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시정 현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행정문화위원회의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산업건설위원회의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서영훈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124회 임시회를 통해 시민의 삶과 지역 현안에 집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최근 해외 취업사기 등 청년 문제에 주목하고, 청년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영훈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의회가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당진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간담회 개최

10월 27일



당진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명우)는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당진시 관내 발달장애인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진시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복지시설 관계자, 장애인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인지 능력의 한계로 인한 실종 위험과 위급 상황 발생 시 대처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관련 기관과 부서도 함께 배석 되어, 즉석에서 배회감지기 보급 수요에 대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대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박명우 위원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불편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 중심의 지원이 아닌 복지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당진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발달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시의회, 제124회 임시회 마무리

10월 29일

당진시의회가 10월 29일(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8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안건 심사 등 총 19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던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2건 총 13건을 심사했고,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전선아 의원의 '당진 전통시장 장날 셔틀버스 도입 제안'을 비롯해 ▲김명진 의원의 '당진시 철강산업 위기에 따른 대책 마련' ▲김덕주 의원의 '시민과 직원이 함께 불편한 주차장, 해법이 필요'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서영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의결된 조례들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시의회는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125회 제2차 정례회를 갖고 각종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당진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장기요양재가연합회와의 간담회

10월 30일

당진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명우)는 10월 2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당진시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회장 박종육)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장기요양기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행정문화위원회 박명우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당진시청 관계 공무원, 당진시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 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는 ▲주간보호센터 내 조리원·운전원·사무원 등 기타 직종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상수도 요금 감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지원 ▲장기요양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등 4건의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특히 연합회는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사·간호사·요양보호사 외 상근직 조리원과 운전원, 사무원은 처우개선비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며 "요양시설과 동일하게 기타 직종에도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건의했다.

박명우 위원장은 "오늘 제안된 내용들은 장기요양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겠다"라며 "노인 돌봄 종사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라고 밝혔다.

의정 NEWS

당진시의회, 완주군의회에 입법영향평가 운영 경험 공유

10월 31일



당진시의회는 10월 30일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조례 정비 및 특례 발굴 연구회'와 간담회를 갖고, 입법영향평가 제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완주군의회 연구단체가 입법영향평가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대표의원인 성중기 의원을 비롯해 유이수 의원, 이경애 의원 등이 당진시의회를 찾았다.

완주군의회는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 중인 당진시의회의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제도 도입과 조례 정비 모델 구축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방문은 앞서 지난 8월 옥천군의회, 9월 인천 서구의회에 이어 당진시의회의 입법영향평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세 번째 지방의회 방문이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는 서영훈 의장을 비롯해 조상연 의원, 김명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당진시의회는 입법영향평가 도입 배경과 추진 과정,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실무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 완주군의회 연구단체는 입법영향평가의 실제 적용 사례, 전문 인력 운영 방식, 제도적 효과 등에 대해 질의하며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서영훈 의장은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당진시의회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교류가 완주군의회의 입법영향평가 모델 구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협력과 상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2023년부터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지방의회의 입법역량 강화와 자치법규 품질 향상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해 제1차 입법영향평가(23~24)를 완료한 데 이어 현재 제2차 입법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지난 7월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를 마치고 하반기 평가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미래농업 선진지 견학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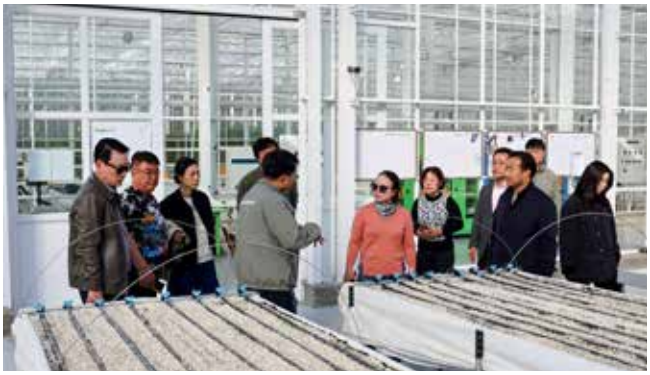
11월 5일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명수)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여수시와 김제시 일원에서 미래농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윤명수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 등 15명이 참여했으며, 여수 남해화학과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죽산콩 영농조합법인을 차례로 방문해 선진 농업현장을 살펴봤다.

산건위 의원들은 먼저 여수시 남해화학을 찾아 비료 생산공정과 품질관리 체계, 친환경 제품 개발 과정에 대해 청취하며 당진 농업에 필요한 토양 개선과 효율적인 시비 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또한 농업생산의 기반이 되는 비료 산업의 역할과 안정적인 농자재 산업의 흐름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원들은 전북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자동화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첨단 온실 시스템과 청년농 창업지원 시설을 둘러봤다. 약 21.3ha 규모의 이 단지는 센서와 자동제어 기술을 통해 재배환경을 관리하는 곳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실습과 창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당진시의회, 예산·결산연구모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11월 6일



당진시의회 예산·결산 연구모임이 11월 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당진시 예산심의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예산·결산 연구모임의 조상연 대표의원을 비롯한 전영옥, 김덕주, 김명진, 한상화 의원과 공공재정 연구원, 시청 관련 부서 등 10여 명이 참석해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용역은 ▲예산편성 기본원칙 준수 여부 ▲사전절차 이행 실태 ▲1억 원 이상 세출사업 분석 ▲보조금 단가 및 기준 검토 등 5개 과제를 중심으로 수행됐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당진시는 형식상 예산편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나, 명시이월·불용액이 누적되고 세입 추계의 낙관성, 보조금 단가의 불균형 등 구조적 개선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승인제, 예산심의 체크리스트 실무화 등 개선책이 제시됐다.

연구모임 시의원들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금액 조정 중심의 심의에서 벗어나 근거와 성과 중심의 예산심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라며 "향후 실무 기반의 예산분석 지원체계를 마련해 의회의 재정 통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당진시의회, 고령친화도시 연구모임 연구용역 등 최종보고회 개최

11월 7일



당진시의회 고령친화도시 연구모임은 6일(목)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당진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용역을 수행한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박경애 책임연구원(세한대 사회문화복지학부 교수)은 "당진시는 고령인구 비율이 21.8%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라며 "WHO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을 기준으로 볼 때 교통 접근성, 돌봄 서비스, 사회참여 기회 확대가 주요 과제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 주요 정책 제안으로는 ▲고령자 보행 신호시간 연장 및 휴식공간 확충 ▲교통약자 이동 지원 확대 및 농어촌형 수요응답 교통서비스 도입 ▲고령자 주거환경 리모델링 지원 ▲면·리 단위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세대 통합 프로그램 확대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 ▲정보 전달 가이드라인 마련 ▲AI·IoT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고도화 등이 제시됐다.

전선아 대표의원은 "고령친화도시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당진시가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구체화됐다"라며 "의회는 앞으로도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포용적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정 NEWS

당진시의회,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11월 8일

당진시의회는 7일(금) 당진시청 2층 중회의실에서 '당진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개선 및 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최연숙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한서대 사회복지학과 안권순 교수가 「지역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을, 지속가능한지역살림연구소 임정규 소장이 「이주여성 인권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지정토론에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한국어 교육, 학습 멘토링, 문화 이해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최연숙 부의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당진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전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당진시의회, 11월 중 의원출무일 개최

11월 14일

당진시의회는 13일(목) 의회 대회의실에서 '11월 중 의원출무일'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11월 24일 예정된 제125회 정례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의원출무일에는 당진시 23개 부서 43건의 당면 보고가 있었다.

이날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23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제안한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을 종합 보고했다. 발언 내용은 부서별 검토를 거쳐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거나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정책제안이 실제 행정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서영훈 의장은 "의회가 제시한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곧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 해달라고 말했다.

안전총괄과는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송산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신청사 건축은 송산면 상거리 일원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송악읍 고대리 일원에 추진 중인 K-모빌리티 오토허브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 밖에도 농업정책과, 사회복지과 등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 보고가 이어졌으며, 현안 청취 이후에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사전 설명이 진행됐다.

당진시의회, 2025년 하반기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11월 14일

당진시의회는 1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장 등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매매 등에 대한 예방 의식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교육은 신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종희 초빙교수가 맡아 다양한 사례와 활동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박종희 교수는 ▲4대 폭력의 개념과 유형 ▲성립 요건 ▲발생 원인 등 기본 내용을 짚고, 실제 사건 발생 시 피해자·행위자·주변인이 취해야 할 태도,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와 신뢰 형성 요소를 다루고, 지방의회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례를 모둠별 토의 형식으로 분석하는 시간 또한



진행됐다.

오늘 교육을 통해 시의원들과 의회 공무원들은 "폭력 예방과 성평등 문화 확산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의무이다"라며 "교육에서 논의된 실천 수칙을 의정활동과 조직 운영 전반에 적극 반영해 안전한 의회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당진시의회,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11월 17일

당진시의회는 14일(금)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당진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돌봄·문화·의료·직업 등 전반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좌장인 한상화 의원이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주제 발표에는 나사렛대학교 박종균 교수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Habilitation Center(발달·재활 지원센터)'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능력 향상 ▲의사소통·사회적 응답성 강화 ▲취업을 위한 직업기술 교육 ▲가족과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적 지원 체계 마련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에서는당진시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현실 기반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좌장인 한상화 의원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의 협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가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정 NEWS

당진시의회, 예산·결산 연구모임 최종 보고회 열어

11월 18일

당진시의회 예산·결산 연구모임이 11월 17일 최종 보고회를 열고 올해 연구 활동 결과와 예산심의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예산·결산 연구모임은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 조상연 대표 의원을 비롯해 전영옥 간사, 김명진, 김덕주, 한상화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또한, 이강학 당진시 국장, 이은정 예산팀장이 민간전문가로 참여해 전문적 검토를 지원했다.

그동안 연구모임은 예산편성 운영지침과 결산 방법 교육을 실시해 심의 역량을 강화했고, 예산과 결산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집행부 예산에 대한 검토 기능을 높였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해 당진시에 적용할 방안을 검토했으며, 기금·특별회계 성과용역을 통해 적정 규모 설정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기초의회 차원 자문제도가 충분히 운영되지 않아 광역의회와 중앙 사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분석 기준이 2023~2025년 예산과 결산 자료에 한정돼 향후 법령 개정이나 지침 변경 사항은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등 여러 한계도 함께 제시했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향후 예산심의와 결산 검토 과정에 반영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1년여 간의 예산 결산 연구모임을 최종 마무리했다.



당진시의회,'제124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11월 18일

당진시의회가 11월 17일'제124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125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6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오는 24일에 있을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세부일정으로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조례안 심사 ▲11월 28일 부터 12월 1일까지 제6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시정질문 ▲12월 12일부 17일까지 6일간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상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뿐 아니라 시정질문까지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이번 제125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연말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당진시의회, 제12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5월 28일

당진시의회가 24일 제12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12월 19일까지 26일간 이어지는 이번 회기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한, 2025년도 제6차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안건 등을 심사한다.

세부일정으로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조례안 심사 ▲11월 28일 부터 12월 1일까지 제6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시정질문 ▲12월 12일부 17일까지 6일간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된다.

서영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을사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제4대 후반기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맞았다"라며, 그동안 시의회에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준 시민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동료 의원, 그리고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온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서 의장은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한 집행부서



의 추진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다"라며 의원들에게 시민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당진시가 제출한 1조 4,770억원 규모의 예산은 시민의 복리와 지역 미래를 위해 소중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며 각 사업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의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관내 현안사업 현장점검 보고

12월 2일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명수)는 12월 1일 관내 주요 현안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송산면과 석문면 일원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 현황과 지역 농업의 미래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위원회는 송산면에 설치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초소를 찾아 방역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살처분 농가 조치 현황, 방역대 내·외 농가 예찰 결과, 통제초소 운영 방식 등을 점검했다.

특히 초동대응의 중요성과 농가 이동제한·사료 등 실질적인 방역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폈다.

이어 위원회는 석문면 일원에 조성 중인 스마트팜 실습교육장 및 스마트팜 원예단지를 방문하여 ▲토마토·딸기·엽채류 등 다양한 작목을 활용한 스마트온실 실습교육 ▲딸기 육묘장 운영 계획 ▲향후 임대형 스마트팜으로의 연계 등에 대해 청취 후 현장을 둘러보았다.

윤명수 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방역·농업 분야의 주요 현안을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의정 NEWS

당진시의회, 2025년 시정질문 대비 주요 현장방문 실시

12월 5일



당진시의회는 지난 4일, 2025년 시정질문을 대비해 주요 현안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역 내 생활·안전·환경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시정질문 단계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먼저 ▲신평면 신당리 성토지 침출수 피해 현장을 시작으로 ▲맷돌포구 일대(어촌뉴딜·관광상품·도로·주차장) ▲송악물류단지 조성사업 ▲부곡공단 지반침하 및 공단 내 관리 현장 ▲한진포구 어촌뉴딜사업 ▲장고항 국가어항 개발 및 여객터미널 추진사업 ▲도비도-난지도 탄소중립 치유 특구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특히 신당리 침출수 피해지역에서는 성토 이후 발생한 침출수가 인근 농경지에 유출돼 벼 고사 피해가 발생한 상황과, 관련 부서의 조사·고발 조치 및 원상복구 절차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어 부곡공단 지반침하 현장에서는 공단 내 도로가 내려앉고 일부 구간이 균열되는 등 기반시설 훼손이 기업 물류 활동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시정질문 대비 사전 조사를 실시한 시의원들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은 향후 시정질문에서 좀 더 심도있게 다룰것이다”라며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오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시정질문에서 당진시청에 명확한 답변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합덕역 활성화 방안 모색 위한 현장견학 실시

12월 19일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명수)는 합덕역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해 지난 12월 17일(수) 서해선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견학은 홍성~서화성역까지 개설된 서해선을 직접 체험해 이용객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합덕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합덕역 ~ 서화성역 서해선 열차 체험과 시화호 조력발전소 방문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 등 약 15명이 참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견학을 통해 ▲서해선 개통 1년간의 운영성과 분석 ▲열차 이용 실태 및 불편사항 점검 ▲개선이 필요한 제도·운영 사항 발굴 ▲합덕역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특히 서해선은 현재 ITX-마음(일반열차·새마을호 준급) 열차가 운행 중이며, 최고속도는 시속 150km이다. 열차 운임은 기본운임 4,800원(50km 기준)에 거리요금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이용 과정에서의 체감 요금과 할인 제도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서해선 개통 이후 합덕역의 역할과 가능성을 다시 점검할 시점이다”라며 “이번 현장견학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과 합덕역 중심의 지역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진시의회, 제125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5월 28일

당진시의회가 12월 19일(금)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5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26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종 안건 심사 등 총 63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11월 25일부터 26일 2일간 진행됐던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7건, 동의안 11건, 의견청취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총 50건을 심사했고,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총 122억 1,876만 원을 삭감해, 최종 1조 7,059억원으로 의결했고, 제7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1조 4,761억원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각종 통합관리 예산이 예산의 구체성 결여, 예산편성 운영지침상 근거 부족 등의 사유로 삭감됐다. 이 밖에도 안전총괄과를 비롯해 문화예술과, 평생학습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농업기술과 등의 예산도 실효성과 적정성 부족 이유로 삭감 및 감액 조정됐다.

다만, 안전총괄과의 '재해 및 재난복구 추진'을 위한 수방자재(말목) 구입비는 최근 반복되는 기상이변으로 수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2천2백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액은 의회 수립 이후 예산 증액을 결정한 첫 사례로, 엄격한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예외적으로 반복되는 기상이변에 따른 수해 위험을 고려해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다.

또한,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시정질문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와 정책 제안이 있었다.

시정질문 1일차에는 ▲김명진 의원이 농기계 보조금과 공익직불금 문제를 ▲조상연 의원이 지방보조금과 의원 사업비 구조를 ▲김덕주 의원이 지방도 확장과 도로 복구 문제를 ▲윤명수 의원이 맨홀·정지선 안전 문제 집중 점검을 요구했다.

2일차에는 ▲전영옥 의원이 침수피해와 관련해 배수펌프장 설치 문제와 숙박 인프라를 ▲최연숙 의원이 안전·편의시설 관리와 지역 격차 문제를 ▲김명회 의원이 해양폐기물 대책을 ▲김선호 의원이 관광 개발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박명우 의원은 관광 예산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

3일차에는 ▲심의수 의원이 LNG 냉열 산업 육성을 ▲전선아 의원이 관광·숙박 인프라 보완을 ▲한상화 의원이 양식시설 침수 대책을 ▲김봉균 의원이 노인·복지시설 이용 편의 개선을 요구했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제12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으며, 2026년 의사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2026년 제126회 임시회를 열고 각종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5분 자유발언

| 10월 1일 |
제1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드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김 명 진 의원

당진시의회 김명진 의원은 10월 1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드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농업용 드론 사용이 늘어나면서, 주변 철탑과 전신주 등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등록 드론은 2016년 2,226대에서 올해 4월 말 6만 7,902대로 급증했다.

김명진 의원은 “당진시는 드론 공원 사업을 추진하며 드론산업지원센터도 개소했지만, 정작 사용자와 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부족하다”라며 “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교육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체·배터리 점검, 보호 장비 착용, 안전거리 확보 등 기본 안전수칙을 포함한 교육과 영리 목적 드론의 전수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김명진 의원은 “드론 관련 전문성을 갖춘 총괄 부서를 지정해 교육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라며 “시민과 사업자,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 10월 1일 |
제1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당진, 머물며 즐기는 여행도시로 함께 만들어갑시다.

전 선 아 의원

당진시의회 전선아 의원은 10월 1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당진 관광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며, '당진, 머물며 즐기는 여행도시로 함께 만들어갑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전선아 의원은 "당진은 바다와 산림, 역사와 문화자원을 두루 갖춘 도시로, 삽교호 관광지에는 올해 7월까지 500만 명이 다녀가며 핵심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라며 "드론 라이트쇼와 면천 또봄 축제는 체류형 관광지로의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숙박·편의시설 부족, 연계 프로그램 미비, K-콘텐츠 촬영지 활용 부재 등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숙박 인프라 확충 ▲관광 정보 접근성 강화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촬영지 마케팅 강화 ▲편의시설·교통 개선 ▲민관 협력 강화라는 6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주민 참여형 축제와 지역 농특산물·체험 프로그램·숙박업체를 연계한 패키지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선아 의원은 "관광은 단순히 방문객 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확산,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행정과 시민, 지역 기업이 힘을 모아 관광객이 머물며 즐기는 당진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5분 자유발언

| 10월 22일 |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당진중앙2로와 수청로의 연결을 통한 도로망 확충을 제안합니다.

심 의 수 의원

당진시의회 심의수 의원은 22일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진중앙2로와 수청로 연결을 통한 도로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 도시교통계획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심의수 의원은 "구도심, 신터미널, 수청지구는 당진시 내 인구와 교통 수요가 가장 집중된 지역이다"라며 "행정기관과 학교,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지만, 교통망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차량이 32번 국도로 몰리면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시민의 생활 불편은 물론 도시 경쟁력 저하와 안전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심 의원은 "시곡1동 마을회관 인근 약 700m 구간을 연결하면 구도심에서 신터미널, 수청지구로 이어지는 핵심 교통축이 완성돼 32번 국도의 혼잡이 완화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 출퇴근 시간 단축, 상권 접근성 개선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심의수 의원은 "도로망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는다"라며 "이미 교통 수요가 집중된 지역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계획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 10월 22일 |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은 실천, 조화 없는 묘지로 탄소중립에 앞서 나갑시다

한 상 화 의원

당진시의회 한상화 의원은 22일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설묘지의 플라스틱 조화 사용 문제를 개선하고, 탈플라스틱·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한상화 의원은 “우리 시 공설묘지에는 성묘철마다 수많은 시민이 방문하고, 그만큼 플라스틱 조화가 반입된다”라며 “이 조화들이 풍화되며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은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플라스틱 조화는 매립·소각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유해물질을 배출하며, 처리비용 또한 매년 적지 않은 예산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환경오염, 탄소배출, 예산 낭비라는 삼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특히 부산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부산시는 지난해 말부터 공설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를 전면 금지하고, 생화나 건조화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병행해 시민 공감 속에 제도를 안착시켰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상화 의원은 ▲공설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 제한 제도화 ▲생화·건조화 등 친환경 대체재 사용 유도 ▲행정·홍보·수거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며 “작은 변화가 2050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5분 자유발언

| 10월 29일 |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당진 전통시장 장날 셔틀버스 도입을 제안합니다.

전 선 아 의원

당진시의회 전선아 의원은 29일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진 전통시장 장날 셔틀버스 도입'을 제안했다.

전선아 의원은 "농촌 지역의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차량이 없는 고령층과 교통약자는 시장 방문이 쉽지 않다"라며 "식품 접근성 개선과 교통복지를 연계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서비스 제도화를 강조하며 전북 김제시와 고창군의 사례를 언급했다.

전북 김제시 백구농협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매주 3회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주민들의 장보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 고창군 역시 터미널 이전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2025년 7월부터 '전통시장 장날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지역 상권 회복과 먹거리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생활밀착형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전 의원은 "합덕, 고대, 정미 등 외곽 지역 주민들도 당진 전통시장을 방문하기 어렵다"라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금, 이러한 생활형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 10월 29일 |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당진시 철강산업 위기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 명 진 의원

당진시의회 김명진 의원이 29일 열린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경제의 근간인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라며 정부와 당진시의 선제적 대응과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미 철강 관세 인상과 중국산 저가 철강재 급증, 내수 침체 등으로 철강 수출이 급감하며, 이에 따른 지역 제조업 수출 감소와 세수 축소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산시와 포항시는 이미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광양시도 지정을 신청한 상황이다”라며, “우리 시 역시 충남도와 협력해 선제대응 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명진 의원은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긴급 경영 안정 자금과 투자 촉진 보조금, 정책금융 우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철강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유지를 위한 인건비 일부 지원 ▲철강업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물류비 지원 ▲기업 운영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5분 자유발언

| 10월 29일 |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민과 직원이 함께 불편한 주차장, 해법이 필요합니다

김 덕 주 의원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원이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청 주차장이 시민과 직원 모두에게 불편한 공간이 되어버렸다”라며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당진시청은 총 876면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어 법정 기준의 2.16배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주차할 곳이 없어 회의나 민원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장기주차와 전세버스 환승객의 무단 이용으로 시민이 아닌 외부인 전용 공간처럼 변질됐다”라며 “민원인 전용 구역을 운영했지만 실효성이 낮았다”라고 말했다.

김덕주 의원은 “천안시와 아산시는 2시간 무료 후 유료화를 도입해 장기 주차를 억제하고 민원 편의를 높이고 있다”라며 “도내 주요 도시 중 하나인 당진시도 이제 현실적인 주차 정책을 도입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현안토론회에서 직원 차량 5부제, 주차장 증축, 유료화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고, 2025년 중 유료화 추진 계획까지 제시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변화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청사 인근 신규 주차장 확보 및 예산 반영 ▲신규 주차장 조성 전까지 합리적인 요금제 기반의 유료화 추진 등을 제안하며 “시민의 불편이 행정의 변화로 이어지는, 진정한 시민 중심의 당진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11월 24일 |
제125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성공적인 도민체육대회를 위한 준비와 참여

김 덕 주 의원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원이 제125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 충남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덕주 의원은 "당진에서 도민체전이 열리는 것은 약 20년 만의 일로, 도시 브랜드 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라며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회 운영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라며 ▲당진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개막식 구성 ▲임시주차장·셔틀버스 등 교통 혼잡 대비 대책 ▲숙박·음식점 위생 및 요금 관리 강화 ▲응급의료·군중관리 등 안전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며 위에 4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김덕주 의원은 "도민체전은 당진이 충남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며 "당진시·체육회·시민이 함께 철저히 준비해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회를 완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안한 내용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어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5분 자유발언

| 11월 24일 |
제125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당진시 수산자원 회복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합니다

심 의 수 의원

당진시의회 심의수 의원이 제125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업 환경 변화에 맞춘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심의수 의원은 LNG 기지 신규 항로 개설과 항만 개발로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어민 생계가 위협받아, 석문면 해역 어선 30%가 낚시 어선으로 전환하는 등 어촌경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의원은 당진시가 변화한 해양환경에 맞춰 실질적·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효과가 입증된 사업은 유지·보완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수산자원 회복 전략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특히 심의수 의원은 ▲조피볼락 중간성어 방류사업 예산 복원 ▲주꾸미 산란 서식장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갑오징어 산란 서식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3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행정적 검토를 요청했다.

심 의원은 “이 세 가지 정책은 당진시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다”라며 “행정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당부한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 11월 27일 |
제125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불법 매립 방지를 위한 지역 관리 협력체계 개선 방안 촉구

최 연 숙 의원

당진시의회 최연숙 의원이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개발행위 허가 이후 발생하는 불법 매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관리·협력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신당리 일대에서 발생한 불법 성토재 반입 사건을 언급하며 “적법하게 허가된 개발행위였지만, 이후 관리 공백 속에 불분명한 성토재가 반입돼 침출수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착공신고조차 필요 없는 개발행위의 경우 준공까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행정이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가 문제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의원은 불법 시도 이전 단계에서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 일정 규모 이상 토사 반입 개발지에 대한 현장 점검 강화 ▲ 읍·면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확립 ▲ 마을 단위 주민감시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불법 매립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불법 매립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 조치도 요청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매립을 예방하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5분 자유발언

| 12월 3일 |
제12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당진시의 재정권을 지키기 위해 예산안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조 상 연 의원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남도의 일방적인 예산 요구가 당진시의 재정권과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조 의원은 “2024년 체결된 업무협약에서 2026년부터 당진시충남합창단 운영비 전액을 충남도가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2026년 본예산안에 시비 12억 6천만 원이 포함된 것은 “명백한 협약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약 변경 과정에서 ‘당진시 의무부담·권리포기 의결 조례’가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충남도가 지방재정법이 금지한 부당한 재정 압박을 시에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상연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당진시뿐 아니라 도내 5개 시군에 약 60억 원의 부담을 지우는 문제다”라고 강조하며, 예술단원 생계를 볼모로 시군을 압박하는 충남도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조상연 의원은 ▲도비 보조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요소를 바로잡아, 당진시의 예산 편성권 침해를 중단하고 ▲ 충남도는 당진시와의 협약을 즉각 이행해 2026년 합창단 운영 예산 전액을 도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상연 의원은 “당진시의회는 시민의 재정을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라며 “부당한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위법한 예산안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12월 19일 |
제125회 제2차 정례회 7차 본회의



소아과 조기진료 지원 등 워킹맘·맞벌이 가정 체감 대책 촉구

김 덕 주 의원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원은 제125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당진시 출산율 현황을 짚으며, 출산 이후 양육 환경 전반에 대한 정책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덕주 의원은 “당진시는 2년 연속 충남 출산율 1위를 기록했으며, 합계출산율 1.07명으로 전국 평균과 충남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라며 “이는 그동안 추진해 온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성과이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출산 이후 양육 단계, 특히 워킹맘과 맞벌이 가정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소아과 진료 여건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당진시에는 7개의 소아청소년과가 운영 중이지만 출근 전 조기진료를 시행하는 곳은 없고, 저녁 연장진료도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김 의원은 “부산과 서울 일부 지자체처럼 소아과 조기진료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도입한다면 현금성 지원보다 실질적인 양육 지원 정책이 될 것이다”라며 “이러한 노력이 출산율 상승세를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핵심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덕주 의원은 “아이를 낳는 순간뿐 아니라 키우는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편안해야 한다”라며 “당진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다”라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했다.

5분 자유발언

| 12월 19일 |
제125회 제2차 정례회 7차 본회의



우수자원봉사자 간병 서비스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한 상 화 의원

당진시의회 한상화 의원은 제125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수자원봉사자 간병지원 서비스의 실질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원봉사센터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당진시 전체 자원봉사자 중 60대 이상은 1만 6천996명으로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1천 시간 이상 누적 봉사자도 902명에 달하는 등 고령 봉사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간병지원 제도는 '1인 1회, 최대 50만 원, 5일 이내'라는 제한으로 인해 실제 이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는 설명이다.

한상화 의원은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활용하기 어렵다면 실질적인 지원이라 보기 힘들다"라고 말하며 ▲간병서비스 지원 대상의 배우자 확대 ▲봉사자의 연령과 활동량을 고려한 지원 금액·일수 현실화 ▲이용 절차 간소화 및 제도 안내 강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한상화 의원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감 가능한 지원은 당진시 자원봉사 생태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며 "당진시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간병지원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라고 당진시청에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 12월 19일 |
제125회 제2차 정례회 7차 본회의



당진형 통합돌봄, 스마트 기술로 시작합시다

김 명 회 의원

당진시의회 김명회 의원은 지난 19일 제125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회 의원은 “돌봄서비스의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향상과 구체적인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라며 “어르신의 독립과 사회 참여, 존엄이 보장되는 돌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당진시 고령인구 증가로 돌봄 수요는 늘고 있으나 현장 인력은 부족한 현실을 짚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기저귀 교체 시점을 알리기 어려워 욕창이나 감염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는 돌봄의 문제가 아닌 인권과 존엄의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당진시가 보건복지부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선정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9곳에 스마트기저귀를 보급하고, 400여 명의 어르신에게 디지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김 의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에 AI 기반 스마트기기를 지속적으로 확대 도입하고, 국비·도비 등 외부 재원을 활용한 관련 공모사업에 당진시가 선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요양시설뿐 아니라 재가 돌봄 대상자까지 스마트 돌봄을 확대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기반 마련도 주문했다.

김명회 의원은 “스마트 돌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며 “당진시가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스마트 복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5분 자유발언

| 12월 19일 |
제125회 제2차 정례회 7차 본회의



당진시, 아픈아이돌봄센터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전 선 아 의원

당진시의회 전선아 의원은 지난 19일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픈아이돌봄센터' 조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전선아 의원은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고열이나 복통 등으로 등원·등교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부모에게 돌아간다"라며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일정 조정이 어려운 직종에 종사하는 부모에게는 가정과 직장 모두 큰 부담이 된다"라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맞벌이 가구 비율은 48%,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8%에 달한다. 충청남도의 맞벌이 가구 비율 역시 54%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수치는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가정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당진시에는 아픈 아이가 하루 동안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전용 돌봄시설이 없는 상황이며, 기존의 병원동행 서비스나 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제공 주체가 달라 연계가 어렵고 의료 전문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선아 "아픈아이돌봄센터 조성은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전문성을 갖춘 안심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당진시의 공적 돌봄 기반과 아동복지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당진시는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한 도시이다"라며 "아픈아이돌봄센터 조성은 그 약속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드는 현실적인 해법이다"라고 밝혔다.

| 12월 19일 |
제125회 제2차 정례회 7차 본회의



산업도시 당진, 위기 대비 노동복지기금 조성 필요

윤 명 수 의원

당진시의회 윤명수 의원은 지난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산업도시 당진의 위기 대응을 위한 '노동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윤명수 의원은 "당진시는 제조업 비중이 지역내총생산의 50%를 넘고, 종사자만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산업도시이다"라며 "이 가운데 1만 5천 명 이상이 철강산업에 종사할 만큼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실제로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가 지속되면서 당진 철강기업들의 지방소득세 납부액은 2022년 317억 원에서 2024년 28억 원으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윤명수 의원은 "당진의 산업 생태계는 대기업과 수많은 협력업체가 촘촘히 연결돼 있어, 대규모 기업의 위기는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며 과거 한보철강 사태를 언급했다.

또한 울산광역시 동구 사례를 들며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지자체는 이미 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해 외부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라며 "당진시 역시 선제적인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명수 의원은 평상시 기금을 적립하고, 경제위기 발생 시 실직자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당진시 노동복지기금' 조성을 제안하며, "이는 특정 산업의 위기가 시민의 삶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는 안전망이자, 산업도시 당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라고 말했다.

건의안·결의안

건의안

철강산업 위기 극복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당진시의회는 22일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덕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당진시는 현대제철 등 철강기업이 밀집한 국가 핵심 산업도시이지만,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과 무역 갈등, 고탄소 규제 등으로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유럽연합(EU)이 무관세 수입 물량을 47%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는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제도를 예고하면서, 우리 철강산업은 미국과 유럽 두 시장에서 동시에 수출길이 막히는 이중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제철은 이미 수천억 원 규모의 관세 부담으로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6% 감소했다”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협력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고용불안과 청년층 이탈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라고 우려했다.

김덕주 의원은 이 문제가 단순히 당진의 지역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적 위기며 정부는 당진시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

당진시의회,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촉구

당진시의회는 29일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덕주 의원은 “공익직불제는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지만,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이 16년째 바뀌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덕주 의원은 “농업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부업을 하는 농민들이 소득 기준 때문에 직불금에서 제외되고 있다”라며 “농가 소득 중 농업소득은 20%에 불과하고 부채는 30년 전보다 7배 늘어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공익직불제의 농외소득 기준을 즉각 상향 조정하고, 기준 초과 농가에 대해서는 전액 배제 대신 단계적 감액 등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장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건의안·결의안

건의안

당진시의회,
국도32호 통로암거 확장 촉구

당진시의회가 국도32호선 구간 내 협소한 통로암거로 인한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하다며, 통로암거 확장을 공식 건의했다.

김명진 의원은 제1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도32호 구간 통로암거 확장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송악읍 반촌2리 통로암거(폭 4.5m, 높이 4.2m)는 차량 교행이 불가능해 국도에서 내려오는 차량만 진입할 수 있어 역주행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긴급 상황에서도 소방차·구급차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평면 거산1리 통로암거(폭 3m, 높이 2.8m) 역시 협소해 차량 긁힘 사고가 잦고, 아파트 169세대와 인근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명진 의원은 ▲대전지방국토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가 송악읍 반촌리와 신평면 거산리에 설치된 통로암거를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확장하고 ▲ 국토교통부는 국도 통로암거의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현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구간에 현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의원출무일









의원출무일













124회 임시회 2025. 10. 22.~10. 29. / 8일간

- 의원발의 조례안 6건, 규칙안 1건
- 시장제출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3건



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김명회 의원 외 4명

제정이유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며 실태조사,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 상담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자 박명우 의원 외 6명

개정이유 새마을운동조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 새마을운동 성공 사례 및 새마을정신 전파를 위한 봉사활동 등 지원 근거 마련.



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자 조상연 의원 외 3인

개정이유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에 5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인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와 협약 체결을 한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대수와 개인 부담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함.



최연숙 부의장

대표발의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자 최연숙 의원 외 3인

개정이유 「2025년도 상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여 조례의 법적합성, 실효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조상연 의원

대표 발의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자 조상연 의원 외 3인

개정이유 「2024년도 하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의 권고 의견에 따라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및 「당진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전선아 의원

대표 발의

당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전선아 의원 외 3인

제정이유 당진시 전세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당진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그 밖의 처리안건

-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발의)
- 당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당진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당진 정미·채운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 「도비도-난지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
-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125회 정례회 2025. 11. 24.~12. 19. / 26일간

- 의원발의 조례안 15건
- 시장제출 조례안 22건, 동의안 11건, 관리계획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김봉균 의원

대표 발의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김봉균 의원 외 6명

개정이유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결과에 따라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1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조례의 법적합성, 실효성 등을 제고하고, 우리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윤명수 의원

대표 발의

당진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윤명수 의원 외 3명

제정이유 시민이 참여하여 학습과 토론을 통해 숙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공론화 과정을 규범화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유사 조례인 「당진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통합하며 시정의 방향성과 정책 대안 제시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갈등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심의수 의원

대표 발의

당진시 재난 대응 공무원 피해 보상 지원 조례안

발의자 심의수 의원 외 4명

제정이유 재난관리 등을 공무원이 빈번히 동원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환경이 지속될 경우 공무원의 재난 대응 의욕과 사기가 저하될 수 밖에 없음. 이에 공무원이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생한 공무원 개인 재산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연숙 부의장

대표 발의

당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발의자 최연숙 의원 외 4명

제정이유 최근 당진시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 강화로 관광객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당진시 관광 진흥과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당진시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박명우 의원

대표 발의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자 박명우 의원 외 2명

개정이유 2024년 9월 제정된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 제정 시 고려하지 못한 전입시민 및 의사상자 전산 오류로 인한 누락자 등 사례가 확인되어 지원금의 지급 절차, 신청 시기, 지급 대상 등의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명회 의원

대표 발의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자 김명회 의원 외 5명

개정이유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결과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 합성, 실효성 등을 제고하고, 우리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125회 정례회 2025. 11. 24.~12. 19. / 26일간

- 의원발의 조례안 15건
- 시장제출 조례안 22건, 동의안 11건, 관리계획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자 윤명수 의원 외 5명

개정이유 조례의 규정을 상위법률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상위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어린이 안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자 심의수 의원 외 3명

개정이유 현행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기준과 일부 불일치하여, 법령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전선아 의원

대표발의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전선아 의원 외 4명

개정이유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조례의 법적합성, 실효성 등을 제고하고, 우리 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자 윤명수 의원 외 5명

개정이유 이에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각종 재난 발생시 필수 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대응을 위한 법적·정책적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명회 의원

대표 발의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자 김명회 의원 외 3명

개정이유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당진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당진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대표성 반영 근거를 마련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임.



한상화 의원

대표 발의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자 한상화 의원 외 3명

개정이유 현행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무상 지원 대상을 조례로 상향 규정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선호 의원

대표 발의

당진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자 김선호 의원 외 6명

개정이유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합성, 실효성 등을 제고하고, 우리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윤명수 의원

대표 발의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자 윤명수 의원 외 2명

개정이유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한 이격거리 규제 등으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발전시설 사업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주민수용성 확보가 용이한 마을회 또는 마을 전체 세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지역주민 주도의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촉진하고자 함. 또한 염해간척농지 입지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동의 요건을 세대로 하고 주민 동의 시 제출양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주민수용성 확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함.



김명회 의원

대표 발의

당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김명회 의원 외 4명

개정이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 치유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함.

125회 정례회 2025. 11. 24.~12. 19. / 26일간

- 의원발의 조례안 15건
- 시장제출 조례안 22건, 동의안 11건, 관리계획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그 밖의 처리안건

- 2026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 2026년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 2026년 (재)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당진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한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당진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8호 법인) 출연 동의안
-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당진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 당진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당진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관리위탁 동의안
- 당진시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 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당진시 수문 관리·운영 조례안
-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
-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당진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일부개정 조례안
- 당진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자의 제안설명이나 예비 심사한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로 의결한다.

의원 김명진, 김봉균, 서영훈, 조상연, 김덕주, 윤명수, 전영옥, 최연숙,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심의수, 전선아, 한상화

안건처리현황

본회의는 아래의 회기(제124~125회) 동안 총 22건의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제12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차수	의사일정
1차	제124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2차	부의안건 등

제125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차수	의사일정				
1차	제12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				
	당진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2차	부의안건 등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휴회의 건				
3차	2026년~203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2025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휴회의 건				
4차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 순	시정질문 • 김명진 의원 • 김봉균 의원 • 조상연 의원 • 김덕주 의원 • 윤명수 의원	5차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 순	시정질문 • 전영옥 의원 • 최연숙 의원 • 김명회 의원 • 김선호 의원 • 박명우 의원	6차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 순	시정질문 • 심의수 의원 • 전선아 의원 • 한상화 의원
	휴회의 건				
7차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의회 조례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위원장 김봉균

의원 한상화(부위원장), 조상연, 전영옥, 전선아













안건처리현황

의회운영위원회는 아래의 회기(제124회) 동안 총 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다.

제12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안 건	의결 결과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원안가결

행정문화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안전국, 문화복지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환경관리사업소, 읍·면·동 소관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고 있다.

위원장 박명우

위원 전선아(부위원장), 김봉균, 조상연, 김덕주, 한상화















안건처리현황

행정문화위원회는 아래의 회기(124회~125회) 동안 총 2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다.

제12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안 건	의결 결과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당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당진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125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 건	의결 결과
2026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당진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당진시 재난 대응 공무원 피해 보상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당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부결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원안가결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당진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한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2026년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2026년 (재)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당진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농업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해 처리하고 있다.

위원장 윤명수

위원 전영옥(부위원장), 김명진, 최연숙, 김명회, 김선호, 심의수










안건처리현황

산업건설위원회는 아래의 회기(제124~125회) 동안 총 3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다.

제12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안 건	의결 결과
당진 정미·채운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원안가결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당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도비도-난지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	찬성의결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찬성의결

제125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 건	의결 결과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당진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당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8호 법인)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당진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당진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당진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원안가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관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당진시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당진시 수문 관리·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원안가결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당진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원안가결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당진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시정 질문

1일차



김 명 진 의원

1. 농기계 보조금 형평성 문제

Q 일부 농민에게 보조금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우강농협 등 일부 사례에서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을 대책은 무엇입니까?

A **오성환 시장 답변내용**

농민들이 느끼는 형평성 문제는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간 지원 기준을 보다 일관되게 만들고, 가능한 경우에는 보조율을 통일하거나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정책과와 농촌진흥과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동일 기종에 대해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2.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및 실경작자 문제

Q 공익직불금은 실경작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부재지주가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임차농이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당진에서도 부정수급이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경작자 중심의 지급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을 질문드립니다.

A **오성환 시장 답변내용**

이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긴밀히 협력해서 실경작자인지 여부를 더 면밀하게 확인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에는 철저한 환수와 제재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직불금이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정밀 조사를 강화해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
- 농협별 동일기종 가격 차이
- 보조금 총액·횟수 제한 필요
- 인구감소 대응·역세권 개발, 세수 오차·불용액 문제



조 상 연 의원

1. 지방보조금 편성·집행의 적정성 관련

Q 행사·축제 분야 예산 낭비 사례가 많은데 대부분이 민간행사 보조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진흥 공모사업은 예총 소속 단체를 공모 신청에서 제외하면서도, 예총 산하 단체 예산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총 단체 예산이 유독 많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문화관광과장 답변내용**

산하 단체가 제출한 사업 중에서는 계획이 미흡하거나 필요성이 낮은 사업이 있어 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단체 수에 비해 가용 예산이 한정돼 불가피한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업계획 미흡으로 인한 삭감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 및 컨설팅 강화하겠습니다.

2. 도·시의원 사업비(도비·시비 보조금) 편성 방식 문제

Q 도·시의원 사업비를 통해 단체가 사업을 제안하고, 도에서 하루만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해도 즉시 제출되는 등 사업이 사실상 심의 절차 없이 자동 예산화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성 방식은 매우 문제가 심각한데,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A **오성환 시장 답변내용**

그동안 도·시의원 사업비가 단체의 요구 창구처럼 활용되면서, 정식 심의·평가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못한 채 예산이 편성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업 신청 시 정식 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
- 당진팜 운영 부실 문제
- 기지시육교 시설 관리
- 통합돌봄 장기 로드맵 제안

시정 질문

1일차



김 덕 주 의원

1. 지방도 619선(성화→기지시→한진) 확장 사업 관련

Q 현대아파트~교차로 583m 구간이 문제입니다.
이 구간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다른 구간처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토지주 민원이 많습니다.
이 구간의 보상과 추진 계획, 어떻게 하실 겁니까?

A **건설국장 답변내용**

해당 583m 도시계획도로 구간은 도비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제4차 도로건설관리계획(2026년 완료) 용역에 반영시키기 위해 시장님, 도지사 방문 민원 등 총 9회 이상 적극 건의했습니다. 토지주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 사업 반영을 최우선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 상수도 공사 후 도로복구(아스콘 보수) 미흡 문제

Q 상수도 공사 후 아스콘 덧씌우기가 미진해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노인분들이 밀차 끌고 다니시다가 턱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자꾸 발생합니다. 어떻게 추진중이십니까?

A **수도과장 답변내용**

의원님 말씀대로 농어촌 지역의 위험 구간을 우선으로 정비하겠습니다.내년에는 우선 급한 구간을 시행하고, 추경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전 구간을 완료하겠습니다.

| 기타 |
- 용·배수로 정비 사업(당진시 vs 농어촌공사) 예산 문제
- 벚꽃 가로수 단풍 미발현(충해·병해) 문제
- 당진 친수공간(시민 친수공간) 조성 지연 문제
- 한진 뉴딜300 복합센터 어시장 점포 철수 문제
- 저연차 공무원 면직 증가 및 처우 문제



윤 명 수 의원

1. 맨홀 관리 및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문제

Q 도심 곳곳에서 도로 침하와 맨홀 단차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 현황과 향후 개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당진시장 답변내용**

현재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중점관리구역을 중심으로 설치해 설치율이 높지만, 일반구역은 예산과 시공 일정 문제로 낮은 상황입니다. 2025년부터는 일반구역까지 확대해 단계적으로 설치율을 높이겠습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역시 일부 도심지에서 기준 미달이 확인돼 일제조사 중이며, 2025년 상반기부터 재도색 및 조정 작업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2. 야간 해루질(맨손어로) 안전대책 및 사망사고 증가 문제

Q 당진 연안에서 해루질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루질 금지구역 지정, 드론 감시 확대, 생활 안전지도 강화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시의 대응 체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당진시장 답변내용**

현재 석문방조제 일부를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야간 시간대에 경찰·해경과 함께 합동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도 예산에 드론 순찰 체계 구축 용역비를 반영해야간 시야 확보 문제를 보완하고, 위험 지역에 대한 이동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해루질객 대상 안전 홍보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기타 |
- 단기여성청소년쉼터 운영 실태 및 확장 필요성
- 남자청소년 단기쉼터 설치 필요성
- 맨홀 보수 처리 기간 및 타 기관 맨홀 관리 체계
- 정지선 이격거리 기준 및 도심지 설치 실태 점검 계획
- 상·하수도 및 통신 등 맨홀 정비 관련

시정 질문

2일차



전 영 옥 의원

1. 신송리 배수펌프장 추가 설치 필요성

Q 국장님, 올해도 7월 집중호우 때 신송리·이원 일대가 크게 침수됐습니다. 신송지구 200-5번지에 이미 배수펌프장이 있지만, 매년 70~80ha가 침수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추가 배수펌프장 설치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합덕·순성 수계와 연결되는 구간, 특히 지방도에서 신송 1·2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좌측은 공포천을 통해 배수가 되는데, 이 지역 배수펌프장 설치 추진 상황도 설명해 주십시오.

A **건설도시국장 답변내용**

현재 신송지구 배수펌프장은 기존 용량의 두 배 규모로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공포천 방향으로 배수가 이루어지는 구간 역시 침수 피해가 커저희가 충남도에 총사업비 약 15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충남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 올라가는 절차에 맞춰 현재 추진 중이며, 내년 예산 반영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 당진시 숙박 인프라 확충 필요성

Q 서산·예산 등 인근 도시와 비교해 여관·호텔·콘도 시설이 크게 부족합니다. 특히 오래된 여관은 주로 근로자 숙소로 활용돼 일반 관광객이 이용할 만한 중급 이상의 숙박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년 도민체전, 2027년 매섬 성지 방문 수요 등 앞으로 큰 행사가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A **당진시장 답변내용**

호텔이나 콘도 같은 중급 이상 시설은 민간 투자가 어려워 전국적으로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비도 지역 대형 호텔 조성, 케이퍼빌리티 일반산단 내 비즈니스 호텔 계획, 서해도시가스와 호텔 설립 협의 진행 등 여러 민간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지침 개정으로 펜션 규모 완화가 가능해진 만큼, 해안 관광 수요가 높은 지역에 펜션·숙박단지 조성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기타 |
- 맷돌포-음섬 해안산책로(올레길) 연결구간 개선 및 데크 설치 필요
- 해안 경관을 활용한 관광코스 상품 개발(올레길·트래킹 코스 등)
- 해안도로 개설 시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관광지 조성 필요
- 사기호천 일대 숙박·휴양단지 조성 검토 제안

※ 서면·자료 화면 설명으로 갈음(당진시의장 직무대리)



최 연 숙 의원

지역 내 안전·편의시설 관리 실태 점검 필요

도심 및 공공시설 중심으로 안전시설 노후화, 접근성 부족, 이용 불편 사례를 분석해 개선 필요성을 제시함.
특히 고령층·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유지보수 미비 문제를 화면 자료로 보여주며 시의 적극적인 개선계획 마련을 요청함.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균형 발전 필요성 제기

읍면 지역 중심으로 생활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 도심과 농어촌 지역 간 문화·복지 인프라 불균형 자료를 제시하며 중장기적 균형 투자 계획 마련을 주문함.

시민불편 사례 중심의 현장 기반 행정 요구

실제 민원 사례·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시가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선제적 관리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

| 기타 |
- 공공시설 내 이용환경 개선 필요
- 고령층·취약계층 중심 맞춤형 편의 인프라 확충
- 생활 SOC 관리체계 점검 및 예산 반영
- 읍·면·동 지역 균형투자 확대
- 현장행정 강화 및 민원 기반 개선체계 구축

시정 질문

2일차



김 명 회 의원

1. 해양폐기물 관리체계 및 산업오염 대응 관련 질의

Q 당진시가 해양폐기물의 발생 조사·예방·수거·재활용까지 포함한 '종합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와 산업시설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해양 생태 변화와 어민 피해에 대해 어떤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A **항만수산과장 답변내용**

당진시는 충청남도의 해양환경 종합계획에 따라 수거·처리·운반·감시 체계를 갖추고 매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4년 기준 8개 사업, 3억 6,800만원 투입, 433톤 수거 실적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산업활동으로 오염원이 유입되는 문제는 충남도·환경부·평택해경과 협력하며 감시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자원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 생활쓰레기 감량 정책·읍면 불법투기 개선 관련 질의

Q 우리 시의 생활쓰레기 감량 정책이 실제 감량 효과를 내고 있는지, 또 읍면 지역 불법투기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무엇인지답변을 요청드립니다.

A **자원순환과장 답변내용**

당진시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확대와 무인 회수기 운영을 통해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의 불법투기는 상시 감시와 과태료 부과, 다국어 안내 등을 통해 구조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클린하우스는 시니어클럽과 협력해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는 인센티브 기반 정책 등을 검토해 장기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기타 |
- 산업오염물질로 인한 해양생태 변화 대응
- 해양폐기물 자원화 방안
- 생활쓰레기 인센티브 제도
- 자원순환 기반시설 확충
- 통합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 민간 전달체계 미비 시 공공 직접 제공 방안



김 선 호 의원

1. 호수공원 조성 사업 관련

Q 호수공원 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정평가와 보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6억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예산 편성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A **당진시장 답변내용**

호수공원은 제 공약사항이며 이미 공청회와 주민 찬성 78%를 기반으로 법적 절차를 모두 진행해 현재 보상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침수 대책은 공원과 별개로 환경부 사업을 확보해 추진 중입니다. 배수펌프장도 분리 발주하여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과 침수 방지는 각각 국비·시비를 조합해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2. 도비도·난지도 탄소중립 치유특구 개발 관련

Q 도비도·난지도 개발을 위한 지역특구 지정은 어디까지 진행 됐습니까? 본계약 체결 시 개발이 미이행될 경우 환수·환매·특약 조항 등을 반드시 포함해 장기적으로 사업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A **당진시장 답변내용**

특구는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농림부와 농어촌공사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계약 시에는 국가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용도 조건과 특약 조항이 당연히 포함되며, 개발 미이행 시 조치 방안도 협의 될 것입니다.

| 기타 |
- 도비도·난지도 지역특구 지정 및 개발 계획 이행 가능성 점검
- 민선8기 투자유치 실적 및 실제 투자액 확인
-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비도 주민 참여 방안 논의

시정 질문

2일차



박 명 우 의원

1. 관광지 홍보 및 예산 집행의 편중 문제

Q 현재 당진시는 삽교호, 왜목마을, 난지도 등 세 곳이 공식 관광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행된 관광 홍보 예산과 관광지 행사 예산을 살펴보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으며 전체적으로도 홍보가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외부 관광객 유입이라는 홍보 목적을 고려하면, 보다 공격적인 외부 홍보와 관광지 간 균형 있는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정의 입장을 묻습니다.

A **관광과장 답변내용**

홍보 예산이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홍보협력담당관과 협력해 타 기관 홍보, 전국 단위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내 홍보 비중이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므로 내년부터는 외부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 면천지역 축제 및 관광지 균형 투자 관련

Q 면천지역에서는 '면천의 봄' 축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특정 지역만 주목받는 구조가 아니라면천·해안권·남부권 등 전체 관광지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가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보는데,시장님의 개선 의지를 묻습니다

A **당진시장 답변내용**

맞습니다. 최근 삽교호 관광지의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드론라이트쇼, 뮤직페스티벌 등 새로운 콘텐츠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투자가 집중된 것입니다. 반대로 남부권과 일부 지역은 소외된 것이 사실이며, 이 균형 문제는 저 역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당진 전역이 특정 지역 중심이 아닌 균형 발전 구조를 갖추도록, 남부권·해안권·면천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와 관광 콘텐츠 개발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안배해 추진하겠습니다.

| 기타 | • 호수공원 조성에 대한 시민 여론 반영 방식
• 장기적 관광정책 방향 및 지역 균형 발전 전략

3일차



심 의 수 의원

1. LNG 냉열 활용 및 중장기 로드맵 구축 관련

Q 당진은 제5 LNG 생산기지가 들어오면서 냉열이라는 중요한 산업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냉열 산업화 로드맵'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타 지자체는 이미 상용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당진시는 냉열 산업을 실제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중장기 로드맵과 육성 전략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당진시장 답변내용

의원님 말씀대로 아직 로드맵이 '예정' 단계라 부족한 점을 인정합니다. 현재 가스공사와 냉열 배관망 협의를 진행 중이고, 아이스링크 등 공공시설 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냉열 산업은 시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분야로 보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과 전략적 추진 방향을 구체화 하겠습니다.

2. 냉열 기반 냉동·냉장 물류단지 조성 관련

Q 냉열 산업의 핵심은 냉열을 실제 사용할 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언급하신 기업 외에 현재 접촉 중인 다른 냉동·냉장 물류 기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A 당진시장 답변내용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적극 추진했으나, SPC 보증서 발급 문제로 진척이 멈춘 상태입니다.대체 부지 제안도 있었지만 아직 협의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추가로 확정된 냉동·냉장 기업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다만 당진은 물류 여건이 좋아 향후 물류·냉동 산업 유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기타 |
- 냉열 활용의 플랜B 필요성
- YK스틸 폐열 활용 '에코-그리드 당진' 프로젝트
- 농업근로자 기숙사 사업

시정 질문

3일차

※ 서면·자료 화면 설명으로 갈음(당진시의장 직무대리)



전 선 아 의원

숙박 인프라 보완 계획에 대한 질의

숙박시설 확충에는 민간투자가 필수적이며, 농촌체험휴양 마을·공공야영장 등을 대체 체류시설로 활용 중이라고 설명.도비도·난지도 탄소중립 치유특구사업 등을 통해 호텔·리조트 민간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편의시설 개선 질의

주차장·화장실·안내판 등 편의시설은 정기 점검을 통해 개선 중이며, 야간 접근성·안내 체계 개선을 위한 연차별 계획도 마련하고 있음.

야간관광 확장 전략에 관한 질의

드론라이트쇼·면천 야간축제의 경제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상권·문화콘텐츠·전통시장 연계 프로그램을 확장 추진 중.

투자유치 전략(관광 포함)에 대한 질의

산업·항만·에너지 기반 기업의 맞춤형 타겟 유치 전략을 적극 추진하며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인허가 지원 체계 개선 등으로 관광·서비스산업 투자 여건도 강화 중.



한 상 화 의원

1. 내수면 양식시설 반복 침수·파손에 대한 구조적 대책 필요성

Q 최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내수면 양식장 침수와 시설 파손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양식시설 내구성 강화나 구조 개선 사업을 시가 실질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반복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점검-우선보강-사후확인의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당진시장 답변내용**

피해가 발생한 양식장에는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구조적 보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반복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보강을 강화하고,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 집중호우 시 하천 역류로 인한 양식장 침수 문제 (배수펌프장 등 근본 대책)

Q 보건리·매산리 등은 장마철마다 하천 범람과 역류로 양식장이 반복적으로 침수됩니다. 배수로 개선이나 차수벽 설치처럼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는 어떤 방식으로 구조적 침수 예방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배수펌프장 추진에 대한 구체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당진시장 답변내용**

올해 피해 양식장이 11곳이었고, 특히 해바라기 농장 주변은 저지대라 상습 침수 구간입니다.
현재 도에서 약 300억 원 규모의 하천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배수펌프장 설치가 필수입니다.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하여 배수펌프장 설치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 기타 |
- 집중호우 시 부유쓰레기 대응 및 어구 보호 대책
- 수산 분야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장례·화장시설 등 장사 인프라 확충 요구

시정 질문

3일차



김 봉 균 의원

1. 노인대학 이동편의 문제

Q 우리 지역 노인대학 대부분이 2층 이상에 위치해 있고, 그중 12곳은 엘리베이터가 없어 어르신들이 계단을 힘겹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건물은 1층 높이만 해도 일반 건물 2~3층에 해당할 정도로 구조가 불편합니다.
시 소유 건물은 최소한 이동 편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불가하다면, 노인대학을 1층 공간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라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당진시장 답변내용**

노인대학은 시가 설치한 기관이 아니라 민간의 요청으로 설립된 시설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비용 부담도 크고, 모든 경로당·노인시설에 확대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의원님 의견처럼 가능하면 1층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설은 이전을 검토하겠습니다. 합덕 노인대학의 공간 개선 요구도 청년보금자리 공공시설 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2. 사회복지관 순환차량 추가 도입 필요성

Q 복지관 순환차량이 부족해 어르신들이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사회복지관은 차량 운행이 없어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각 복지관별 차량 확대를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A **당진시장 답변내용**

복지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순환차량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남부사회복지관 차량 문제는 이미 보고받았고, 개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필요 차량 확충과 운영 방식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기타 |
- 사회복지 공무원 처우 개선필요
- 시간외근무수당 상향 검토 필요성
- 배수문 관리 전면 개선
- 하천·배수로 공사 방식 개선
- 재방 훼손 원인·불법 경작 제재 필요
- 하천 정비 시 생태블록 대신 옹벽 시공 확대 필요
- 수문 감시인력 확대 및 연중관리 필요
- 행정구역·관리주체 불일치 문제 해결

연구모임

고령친화도시 연구모임 (2025. 8. 4.)



예산결산 연구모임 최종보고회 (2025. 11. 5.)



고령친화도시 연구모임 (2025. 11. 6.)



간담회 및 현장견학

국토교통부장관 면담 (2025. 10. 1.)



산업건설위원회 수문관리 개선방안 간담회 (2025. 1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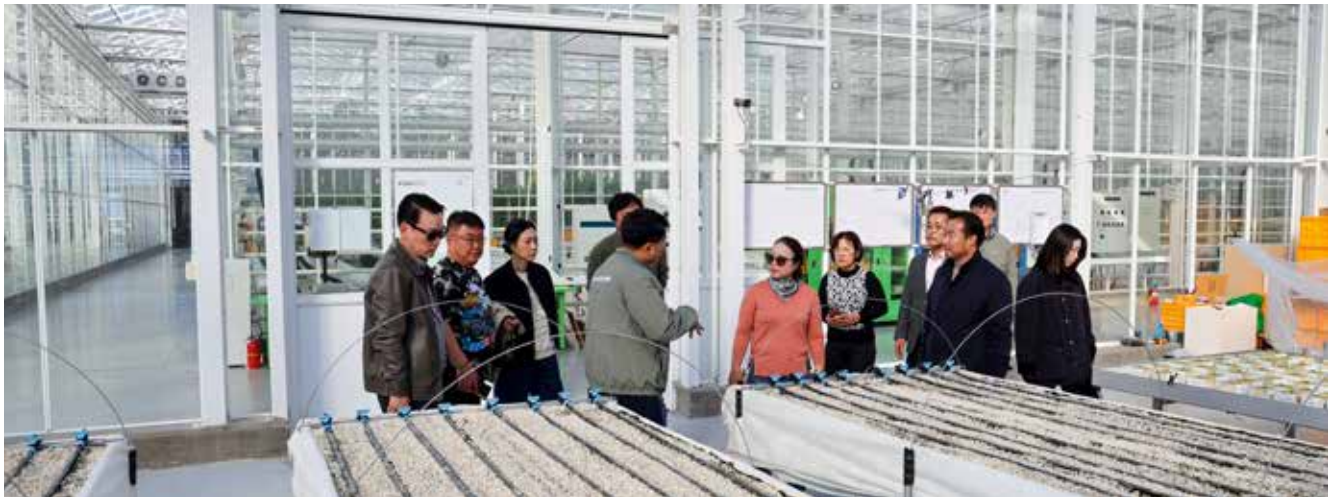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간담회 (2025. 10. 27.)



행정문화위원회 장기요양재가연합회와의 간담회 (2025. 10. 29.)



전북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 현장견학 (2025. 11. 3.)



죽산콩영농조합 현장견학 (2025. 11. 3.)



간담회 및 현장견학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 정책개선 및 통합지원 체계마련 위한 의정토론회 (2025. 11. 7.)



고위직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2025. 11. 13.)





당진시 발달장애인 의정토론회 (2025. 11. 14.)





송악읍 인구3만 재도약 전략과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2025. 11. 17.)





신당리 성토지 침출수 유출 관련 현장 점검 (2025. 12. 2.)



맷돌포구–음섬 해안길 구간 관광객 이용 활성화 및 공영주차장 필요성 점검 (2025. 12. 2.)



간담회 및 현장견학

송악읍 복운리 물류단지 현장 확인 (2025. 12. 2.)



부곡공단 지반침하 현장 점검 (2025. 12. 2.)





송악읍 부곡공단 내 도로, 가로수 및 축구장 관리 현황 점검 (2025. 12. 2.)





어촌뉴딜사업 및 센터 현장 확인 (2025. 12. 2.)



장고항 국가어항사업 및 여객터미널 추진 현황 점검 (2025. 12. 2.)



도비도_난지도 탄소중립 치유 특구사업 현장 점검 (2025. 12. 2.)



부곡공단 가로수관리 현황 점검 (2025. 12. 2.)



간담회 및 현장견학

당진시 주민자치 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 (2025. 12. 1.)



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 (2025. 12. 1.)





2025년 사회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025. 12. 3.)





기념식 및 행사

10월 수시 인사발령(신규임용)
(2025. 10. 10.)



부안군 의회 당진시의회 방문
(2025. 10. 10.)



의원 출무일
도비도 사업설명 (2025. 10. 16.)



기념식 및 행사

신평성당 성모유치원 건의문 전달 (2025. 10. 28.)





완주군 의회입법 평가 관련 방문
(2025. 10. 30.)



당진시의회 의회사무국 한마음 대회
(2025. 10. 31.)



당진시의회 의회사무국 한마음 대회 (2025. 10. 31.)





도안신도시 로컬푸드직매장 개장식
(2025. 11. 3.)



바르게살기운동 충남도 회원대회
(2025. 11. 5.)



기념식 및 행사

제30회 당진시 농업인의 날 행사 (2025. 11. 11.)



2025 당진교육 한마당 (2025. 11. 15.)



제6회 장기요양종사자 역량강화 및 어울림 한마당 (2025. 11. 15.)



희망 2026 나눔 캠페인21 (2025. 12. 2.)



김복선과 이율곡 전설 (합덕 방죽)








그래서 함께 논할 만한 사람을 찾으려고 길을 나섰지


그러다 당진에 합덕 방죽에서 김복선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


복선이는 노비신분이었지만 눈빛이 총명하고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란 걸
단번에 알아봤지. 나라에 난리가 나면 어쩌면 좋겠느냐?

김복선과 이율곡 전설 (합덕 방죽)








결국 임진왜란이 평정되기까지 정말로 여덟해나 걸렸단다.


할머니, 만약 김복선에게 맡겼다면 정말 석달 만에 전쟁이 끝났을까요?


글쎄 그건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앞날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할 줄 알아야
소중한 걸 지킬 수 있다는 거야. 지혜로운 말은 누구의 입에서 나오든 귀하게 들어야 한단다

선녀골과 선녀바위 이야기



옛날 옛적에 저기 바다 건너 삼신산에는 삼신할머니 세 분이 살았단다.



할머니들은 해마다 정가 되면 산마루에서 공기놀이를 즐기셨지.



그건 그냥 돌이 아니라 하늘의 선물이었어



할머니는 그 돌을 찾아 며칠 밤낮을 헤맸어



그러다 바다 건너편 지금의 적설이 근처에서 그 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왔단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를 만났을 때 할머니는 애타게 부탁했지.

선녀골과 선녀바위 이야기









그렇게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마을에 머물게 되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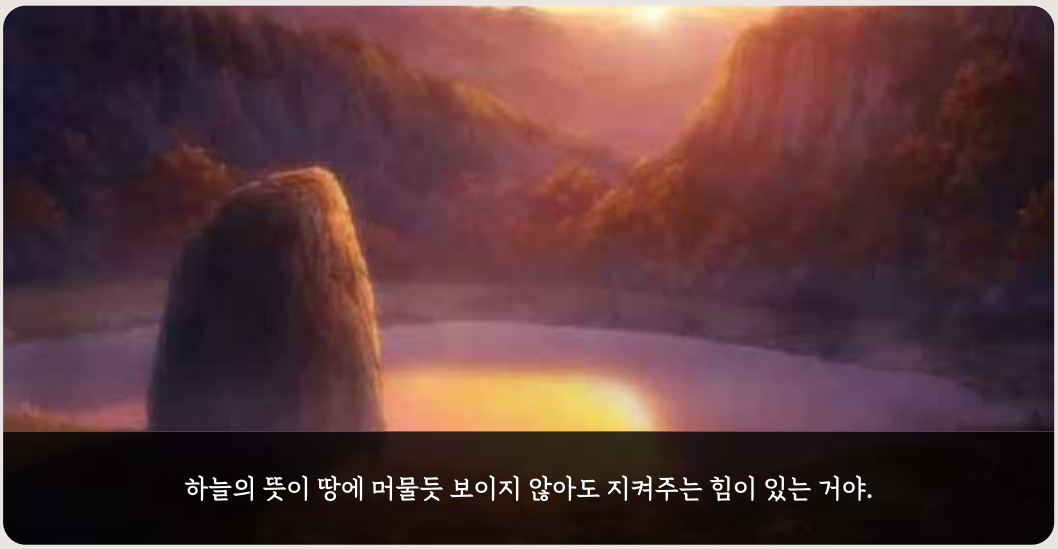
선녀는 삼신산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어



그러다 어느 날 그리움이 너무 깊어서 결국 자신이 앉아 있던 공깃돌 위에서 바위가 되어 버렸단다. 그 뒤로 사람들은 그 바위를 선녀바위, 그리고 그 마을을 선녀골이라 불렀지.

선녀골과 선녀바위 이야기







삼형제 바위 이야기







삼형제 바위 이야기



검은 구름이 몰아치는 어느날 밤



왜적이 몰려와 삼형제의 엄마는 끌려가게 되고



눈물만 남은 세 아들



산마루에 올라와



어머니를 부르다



눈보라 속 얼어붙은

삼형제 바위 이야기



세 기도는 바위 되어



봉고재에 서 있도다


잊지 말라 그 슬픔을


합덕읍 운곡리 삼형제 바위

홈페이지 운영

당진시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dangjin.go.kr)를
통하여 의회 및 의원소개, 의정활동 사진,
의회소식, 보도자료, 홍보영상 등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

모바일을 통해서도 당진시의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당진시의회'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의회 홈페이지 주소
(https://council.dangjin.go.kr)를
입력하여 방문할 수 있습니다.



SNS 운영

시민 여러분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발 빠른 시의회 소식을
만나보세요~

facebook.com/dangjincouncil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이동가능합니다.

blog.naver.com /dangjincl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이동가능합니다.

instgarm.com/dangjincl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이동가능합니다.

www.youtube.com
SUBSCRIBE 유튜브 검색창에 '당진시의회' 채널검색

의회 전화번호

의 장 실	041-350-4840	홍보팀장	041-350-4830
사무국장	041-350-4800	의장부속실	041-350-4845
의정팀장	041-350-4810	부의장실	041-350-4841
의사팀장	041-350-4820	전문위원	041-350-4801~3
정책지원팀장	041-350-4860	의 정 팀	041-350-4811~8
		의 사 팀	041-350-4821~7
		정책지원팀	041-350-4834~9
		홍 보 팀	041-350-4831~3
		F A X	041-355-1901



당진시의회

시민을 섬기고 일하며 책임지는 의회

당진시의회
DANGJIN CITY COUNCIL